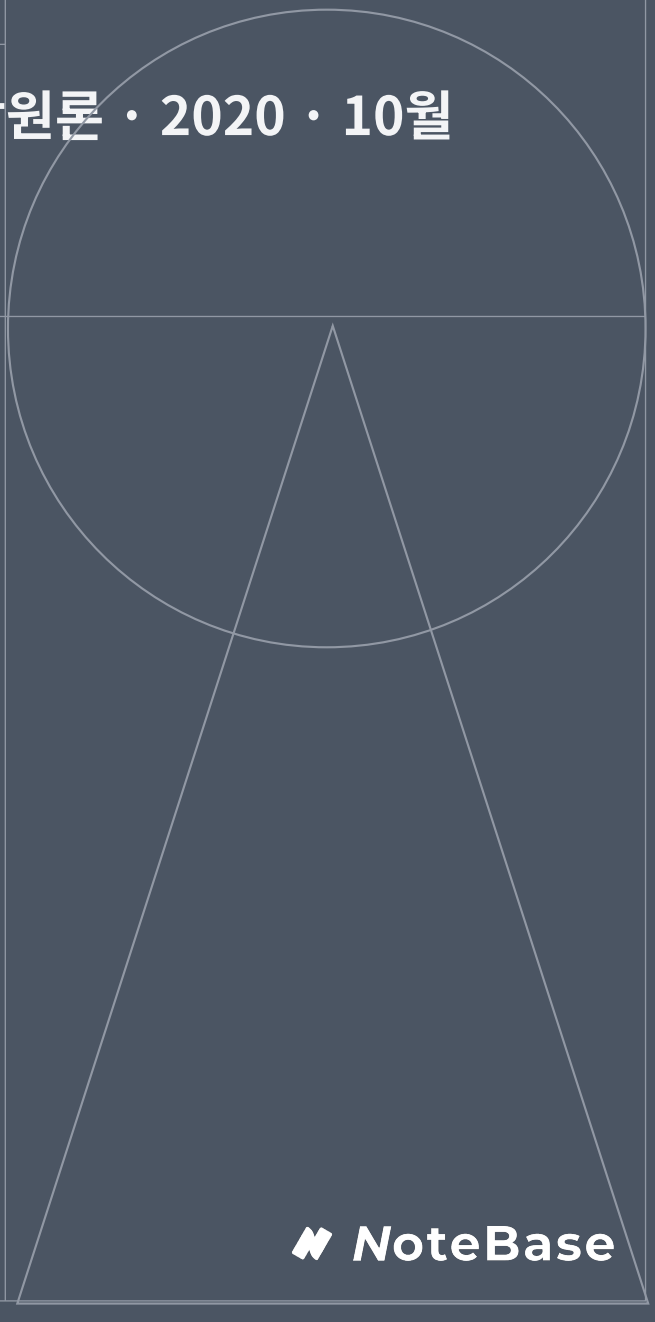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20 · 10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20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20 · 10월

문 1. 한 달 소득이 10만원인 어떤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는 쌀과 밀가루만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1 kg당 쌀은 1만원, 밀가루는 2만원이다. 이 소비자는 특정 소비조합(쌀, 밀가루)=(x, y)에서 한계대체율(MU쌀/MU밀가루)이 0.5라고 한다. 만약 밀가루를 구입할 때 정부가 1 kg당 1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밀가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특정 소비조합(쌀, 밀가루)=(x, y)에서 이 소비자의 효용은 극대화된다.

② 밀가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이 소비자는 더 많은 쌀과 밀가루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③ 밀가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특정 소비조합(쌀, 밀가루)=(x, y)에서 이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늘리고 밀가루 소비는 줄여야 한다.

④ 정부의 보조금이 쌀과 밀가루에 각각 1 kg당 5천원씩 지급된다면, 밀가루에 1 kg당 1만원씩 지급될 때보다 언제나 더 많은 쌀과 밀가루를 소비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비자 최적조건 $MRS = \frac{P_x}{P_y}$와 보조금에 따른 예산선 변화가 소비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월소득은 10만원이다.
쌀의 가격은 1 kg당 1만원, 밀가루의 가격은 1 kg당 2만원이다.
특정 소비조합 (x, y)에서 한계대체율은 $MRS = MU_x/MU_y = 0.5$이다.
보조금 전 상대가격은 $P_x/P_y = 1/2 = 0.5$이다.
밀가루에 1 kg당 1만원 보조금이 지급되면 소비자 부담 밀가루 가격은 1만원이 되고, 새 상대가격은 $P_x/P'_y = 1$이 된다.

사용할 공식

내부해에서 소비자 효용극대 조건은 $MRS = \frac{P_x}{P_y}$이다.
같은 소비조합이 보조금 후에도 최적인지는 새 상대가격과 기존 MRS를 비교하면 된다.
예산선 비교는 각 제도 아래에서 같은 소비조합을 사는 데 필요한 지출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보조금 전에는 $P_x/P_y = 1/2 = 0.5$이고 문제에서 $MRS = 0.5$이므로 (x, y)는 원래 효용극대 소비조합이다.
2. 밀가루 보조금 1만원 후에는 소비자 가격이 $P_y' = 1$이므로 새 상대가격은 $P_x/P_y' = 1$이다.
3. 같은 (x, y)에서 $MRS = 0.5 < 1$이므로 그 점은 더 이상 최적점이 아니다. 이때 $MU_y/P_y' > MU_x/P_x$이므로 밀가루를 더 사고 쌀은 덜 사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4. 원래 최적점은 예산선 위에 있으므로 $x + 2y = 100$이다. 보조금 후 같은 조합의 지출은 $x + y = 100 - y$가 되어 남는 소득이 생기므로 원래 조합보다 쌀과 밀가루를 모두 더 많이 사는 조합이 가능하다.
5. 쌀과 밀가루에 각각 5천원씩 보조금을 주면 가격은 $(0.5, 1.5)$가 되어 예산선은 $0.5x + 1.5y = 100$이다. 이는 밀가루만 1만원 보조금일 때의 예산선 $x + y = 100$과 교차하므로 한 제도가 다른 제도보다 언제나 더 많은 두 재화를 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

선지 판단

1번 X: 보조금 후에는 같은 소비조합 (x, y)에서 $MRS = 0.5$, 새 상대가격은 1이므로 $MRS = P_x/P_y'$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x, y)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보조금 지급 후에는 (x, y)가 더 이상 효용극대 소비조합이 아니다'이다.
2번 O: 보조금으로 밀가루 가격이 내려가면 기존 소비조합을 더 적은 지출로 살 수 있다. 따라서 원래 조합보다 쌀과 밀가루를 모두 더 많이 포함하는 조합도 예산 안에 들어오므로 이 소비자는 더 많은 쌀과 밀가루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3번 X: 보조금 후에는 밀가루의 원화당 한계효용이 쌀보다 커지므로 밀가루 소비를 늘리고 쌀 소비를 줄이는 방향이 효용극대 방향이다. 이 선지는 조정 방향을 반대로 말했다. 올바르게는 '쌀 소비는 줄이고 밀가루 소비는 늘려야 한다'이다.
4번 X: 쌀과 밀가루에 각각 5천원씩 보조금을 주는 경우의 예산선은 밀가루만 1만원 보조금을 주는 경우의 예산선과 교차한다. 예를 들어 최대 쌀 소비량은 전자가 더 크지만, 최대 밀가루 소비량은 후자가 더 크다. 따라서 '언제나 더 많은 쌀과 밀가루를 소비할 수 있다'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어떤 조합에는 유리하고 어떤 조합에는 불리할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는 보조금이 붙은 재화의 상대가격이 내려간다는 점과 예산선이 어떻게 회전하거나 교차하는지를 동시에 보게 만든다. ①은 원래 최적조건이 새 가격에서도 유지된다고 착각하면 틀리고, ③은 상대가격이 내려간 재화의 소비 방향을 거꾸로 판단하면 틀린다. ④는 총보조금 규모만 보고 두 예산선 중 하나가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조금 문항은 먼저 소비자 부담가격을 다시 쓰고, 다음에 MRS와 새 상대가격을 비교해 기존 점의 최적 여부를 판단한다. 그다음 예산선이 포함관계인지 교차관계인지 확인하면 선지의 진위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특정 재화 보조금은 그 재화의 상대가격을 낮추며, 최적조건은 MRS=상대가격이다. 예산선이 교차하면 어느 제도가 언제나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NoteBase

문 2. 어떤 완전경쟁시장 안에 100개의 동질적인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는 $TC = 120 + 10Q + 5Q^2$로 주어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기업이 지출한 고정비용은 모두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시장의 수요곡선은 $Q_D = 1{,}100 - 2P$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시장의 균형가격(P)과 균형거래량(Q)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P: 70, Q: 600

② P: 80, Q: 700

③ P: 90, Q: 800

④ P: 100, Q: 9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을 구한 뒤 이를 100개 기업에 합산하여 시장균형 P와 Q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업 수는 100개, 각 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는 $TC = 120 + 10Q + 5Q^2$, 시장수요곡선은 $Q_D = 1{,}100 - 2P$이다.
구해야 할 값: 시장의 균형가격 P와 균형거래량 Q이다.
주의할 조건: 고정비용 120은 매몰비용이므로 단기공급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가변비용만으로 한계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을 본다.

사용할 공식

가변비용은 $VC = 10Q + 5Q^2$이므로
$MC = \frac{dTC}{dQ} = 10 + 10Q$
$AVC = \frac{VC}{Q} = 10 + 5Q$
완전경쟁기업의 단기공급은 $P = MC$이면서 $P \geq AVC$인 구간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은 가격수용자이므로 이윤극대화 조건이 $P = MC$이다. 또 고정비용이 매몰비용이면 조업 여부는 평균가변비용과의 비교로 결정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개별기업 공급을 구한다.
$P = MC = 10 + 10q$
따라서
$q = \frac{P-10}{10}$
또한 $AVC = 10 + 5q$의 최소값은 10이므로 P≥10에서 이 공급식이 유효하다.
2. 기업이 100개이므로 시장공급곡선은
$Q_S = 100 \times \frac{P-10}{10} = 10P - 100$
이다.
3. 시장균형에서 $Q_D = Q_S$이므로
$1{,}100 - 2P = 10P - 100$
$1{,}200 = 12P$
$P = 100$
이다.
4. 이를 수요식이나 공급식에 대입하면
$Q = 1{,}100 - 2 \times 100 = 900$
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P = 70$이면 시장공급은 $Q_S = 10 \times 70 - 100 = 600$으로 계산되지만, 시장수요는 $Q_D = 1{,}100 - 2 \times 70 = 960$이다. 공급량만 맞춘 값일 뿐 균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균형거래량을 600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수요와 공급을 같게 두어 $P = 100, Q = 900$을 구해야 한다.
② X: $P = 80$이면 시장공급은 700이지만 시장수요는 940이다. 역시 공급곡선 위의 한 점이지 균형점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P = 80, Q = 700$이 균형이라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Q_D = Q_S$를 만족하는 $P = 100, Q = 900$이 균형이다.
③ X: $P = 90$이면 시장공급은 800이지만 시장수요는 920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커 초과수요가 남으므로 균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거래량을 800으로 확정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균형거래량이 900이다.
④ O: $P = 100$이면 시장공급은 $Q_S = 10 \times 100 - 100 = 900$이고 시장수요도 $Q_D = 1{,}100 - 2 \times 100 = 900$이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므로 균형가격은 100, 균형거래량은 900이다.

오답 포인트

보기의 네 쌍은 모두 시장공급식 $Q_S = 10P - 100$ 위에 놓여 있어 중간 계산값처럼 보인다는 점이 함정이다. 개별기업 공급을 구한 뒤 곧바로 보기를 고르면 ①~③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지막에 반드시 시장수요 $Q_D = 1{,}100 - 2P$와 같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 계산형은 가변비용에서 MC와 AVC를 구해 개별기업 공급을 만든 뒤, 기업 수만큼 합산하여 시장공급을 얻고, 마지막에 반드시 $Q_D = Q_S$로 균형을 확정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 단기균형은 개별기업 $P = MC$에서 출발하고, 고정비용이 매몰비용이면 공급결정은 AVC와 비교한 뒤 시장수요와 일치시키는 구조이다.

NoteBase

문 3. 정부가 기업의 노동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노동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이 정책이 기업의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노동의 한계생산이 빠르게 체감하는 기업일수록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②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다른 생산요소를 노동으로 대체하기 쉬운 기업일수록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③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총생산비용 중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④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기업일수록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노동보조금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실질임금이 하락할 때 노동수요 증가폭을 결정하는 노동수요의 가격탄력성 요인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노동수요는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임금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임금이 하락할 때 고용 증가폭은 노동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다른 생산요소로의 대체 가능성, 총비용 중 노동비용 비중,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 노동의 한계생산 체감 속도에 의해 좌우된다.
이때 노동의 한계생산이 천천히 체감할수록 임금 하락에 따른 추가 고용 유인이 더 크게 나타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노동의 한계생산이 빠르게 체감하는 기업일수록"이다.
노동의 한계생산이 빠르게 체감하면 노동을 조금만 더 투입해도 추가 산출이 금방 줄어들므로 임금이 내려가도 고용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노동의 한계생산이 천천히 체감하는 기업일수록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한다"이다.

② O
다른 생산요소를 노동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으면 노동의 상대가격이 내려갈 때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나 노동고용이 더 많이 늘어난다.

③ O
총생산비용에서 노동비용 비중이 크면 노동가격 하락이 총비용을 더 크게 낮춘다.
그 결과 생산 확대 유인이 커지고 파생수요인 노동수요 증가폭도 커진다.

④ O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면 비용 하락으로 상품가격을 낮출 때 판매량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다.
산출 확대폭이 커지므로 노동수요도 더 크게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한계생산 체감이 빠르다"를 "노동이 생산에 중요하다"와 혼동하면 ①을 맞는 말처럼 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노동의 중요성이 아니라 임금 하락에 대해 고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묻는다.
반응이 크려면 추가 노동의 생산성이 오래 유지되어야 하므로 한계생산 체감은 느릴수록 유리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금 하락 시 노동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묻는 문항은 노동수요의 탄력성 결정요인을 점검하는 문제이다.
다른 생산요소로의 대체가 쉬운지, 노동비용 비중이 큰지, 상품수요가 탄력적인지, 한계생산 체감이 느린지를 차례로 대입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노동수요 탄력성은 대체 용이, 노동비중 큼, 상품수요 탄력적, 한계생산 체감 느림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4. <보기>에서 제시된 재화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은?

<보기>
국방 및 치안 서비스, 케이블 TV, 공중파 라디오 방송

① 배제성
② 비배제성
③ 경합성
④ 비경합성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공재와 클럽재를 함께 제시한 뒤, 세 재화에 공통으로 남는 속성이 비경합성인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 성질이고, 비배제성은 그 반대 성질이다.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는 성질이고,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거의 줄이지 않는 성질이다.
국방 및 치안 서비스와 공중파 라디오 방송은 대표적인 공공재에 가깝고, 케이블 TV는 배제성은 있으나 비경합성이 큰 클럽재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배제성은 세 재화의 공통 특성이 아니다. 국방 및 치안 서비스와 공중파 라디오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따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배제성이 공통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배제성'이고, 올바르게는 세 재화에 공통적인 속성은 비경합성이다.
② X: 비배제성도 세 재화의 공통 특성이 아니다. 케이블 TV는 가입자만 시청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이 있다. 틀린 표현은 '비배제성'이고, 올바르게는 케이블 TV는 배제성은 있으나 비경합성이 큰 재화이다.
③ X: 경합성은 공통 특성이 아니다. 국방, 치안, 방송 서비스는 한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분이 바로 줄어드는 성격이 약하다. 틀린 표현은 '경합성'이고, 올바르게는 이들 재화의 공통 속성은 비경합성이다.
④ O: 비경합성은 세 재화에 공통으로 나타난다. 국방 및 치안 서비스, 케이블 TV, 공중파 라디오 방송은 추가 이용자가 생겨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 거의 줄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경합적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케이블 TV를 보는 순간 '유료이므로 배제성'만 떠올리면 ①로 끌릴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 재화의 공통 속성을 묻고 있으므로, 배제성처럼 케이블 TV에만 강하게 나타나는 성질은 탈락시키고 세 재화 모두에 남는 비경합성을 찾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혼합된 재화 묶음이 나오면 각 재화를 배제성, 경합성 두 축에 먼저 올려놓는다. 그다음 모든 재화에 동시에 해당하는 속성만 남기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와 클럽재가 함께 나오면 공통분모는 비경합성인 경우가 많다.

NoteBase

문 5. 두 제품만 생산할 수 있는 경제의 생산가능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 비효율적인 생산점이 생산 효율적인 생산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하여 오목하다면 생산 효율적인 생산점에서 한 제품을 더 생산할수록 기회비용이 점점 커진다.

③ 이 경제에서 생산하는 두 제품에서 기술진보가 이루어진다면 생산가능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④ 생산가능곡선이 직선이라면 두 제품의 기회비용은 일정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산가능곡선의 위치와 모양이 각각 생산효율성, 경제성장, 기회비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산가능곡선은 주어진 자원과 기술 아래 두 재화가 생산될 수 있는 최대 조합의 경계이다.
생산효율적인 점은 곡선 위의 점이고, 생산비효율적인 점은 곡선 안쪽의 점이다.
비효율점에서 효율점으로의 이동은 유휴자원의 활용이나 자원배분 개선을 뜻하고, 경제성장은 생산가능곡선 자체를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변화이다.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기회비용이 체증하고, 직선이면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다. 생산가능곡선 내부의 비효율적 생산점에서 곡선 위의 효율적 생산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자원배분을 개선하면 가능하다. 올바르게는 '생산 비효율적인 생산점이 생산 효율적인 생산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완전고용과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다.
② O: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한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수록 다른 재화 생산을 포기해야 하는 양이 커진다. 이는 자원이 재화별로 완전하게 대체되지 않아 기회비용이 점점 커지는 경우이다.
③ O: 두 제품 모두에서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면 같은 자원으로 두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므로 생산가능곡선 전체가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한 제품에서만 기술진보가 있으면 한 축 방향으로 더 크게 벌어지는 회전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④ O: 생산가능곡선이 직선이라는 것은 두 재화 사이의 대체비율이 일정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 재화를 추가로 생산할 때 포기하는 다른 재화의 양, 즉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비효율점에서 효율점으로 이동'과 '생산가능곡선의 바깥쪽 이동'을 일부러 섞어 놓은 선지이다. 내부에서 경계선으로 가는 변화는 효율성 회복이고, 경계선 자체가 밖으로 밀리는 변화가 경제성장이라는 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쉽게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생산점이 곡선 안쪽에서 곡선 위로 이동하는지, 아니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지를 구분한다. 점의 이동이면 자원활용과 효율성 문제이고, 곡선의 이동이면 자원량 증가나 기술진보 같은 경제성장 요인으로 판단한다.
이어서 곡선이 직선인지 원점에 대해 오목한지 확인하면 기회비용이 일정한지 체증하는지도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곡선 안쪽에서 곡선 위로는 효율성 회복, 곡선 자체의 바깥 이동은 경제성장이다.

NoteBase

문 6.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이 25% 높아졌으며, 이러한 최저임금 수준에서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비탄력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정부가 현재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해당 시장에서 발생할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용은 감소하나, 그 감소량은 현재 고용수준 대비 25%를 넘지 않을 것이다.

② 고용은 증가하나, 그 증가량은 현재 고용수준 대비 25%를 넘지 않을 것이다.

③ 고용이 현재에 비해 25% 이상 감소할 것이다.

④ 고용이 현재에 비해 25% 이상 증가할 것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최저임금 폐지로 임금이 하락할 때 노동수요의 비탄력성이 고용 변화율을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현재 최저임금 도입으로 임금은 원래 균형임금보다 25% 높은 상태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임금은 현재 수준에서 원래 균형임금으로 하락한다.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임금 변화율보다 고용 변화율의 절대값이 더 작다는 뜻이다.

핵심 개념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임금이 1% 변해도 노동수요량은 1%보다 작게 변한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으로 임금이 25% 상승했다면 현재 임금은 원래 균형임금의 1.25배이므로, 제도를 폐지할 때 현재 임금 기준 임금 하락률은 25%가 아니라 20%이다.

적용 기준

현재 임금을 W_m, 원래 균형임금을 W^*라 하면 $W_m = 1.25W^*$이다.
따라서 폐지 후 임금 하락률은 $(W^* - W_m)/W_m = -0.2$이므로 현재 대비 20% 하락이다.
비탄력적 노동수요에서는 고용 증가율의 절대값이 20%보다 작으므로 현재 고용 대비 증가폭은 25%를 넘을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최저임금이 폐지되면 임금이 내려가므로 기업의 노동수요량은 늘어난다. 틀린 표현은 '고용은 감소하나'이다. 올바르게는 고용은 증가한다.
2번 O: 임금은 현재 수준에서 20% 하락하고, 노동수요는 비탄력적이므로 고용 증가율은 임금 하락률의 절대값보다 작다. 따라서 고용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량은 현재 고용수준 대비 25%를 넘지 않는다.
3번 X: 비탄력적 수요에서 임금 하락은 고용 증가로 이어지므로 '25% 이상 감소'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고용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며, 증가율도 25% 이상이 될 수 없다.
4번 X: 방향은 증가가 맞지만 크기가 틀렸다. 비탄력적 수요에서는 현재 기준 임금이 20% 하락해도 고용 증가율은 그보다 작으므로 '25% 이상 증가'로 볼 수 없다.

오답 포인트

많이 틀리는 지점은 '임금이 25% 높아졌다'를 그대로 뒤집어 현재 기준 25% 하락으로 착각하는 부분이다. 1.25배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면 현재 기준 하락률은 20%이며, 여기에 비탄력성까지 적용하면 고용 증가폭은 더 작아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준이 되는 비율의 분모를 먼저 확인한 뒤 방향과 크기를 나누어 판단한다. 그 다음 비탄력적 수요이면 가격이나 임금의 변화율 절대값이 수요량 변화율 절대값보다 크다는 점을 적용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비탄력적 수요는 가격·임금 변화율이 수요량 변화율보다 크며, 25% 상승의 역변화는 현재 기준 20% 하락이다.

NoteBase

문 7.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격 변화와 관계없이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물건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0이다.

② 대체관계인 연필과 샤프펜슬의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을 가진다.

③ 사치품의 경우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지만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은 경향이 있다.

④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라고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격탄력성, 교차탄력성, 소득탄력성의 의미와 부호·크기 해석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필수적 소비재일수록 작고, 완전비탄력적이면 0이다.
교차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 반응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대체재는 양(+), 보완재는 음(-)의 값을 가진다.
소득탄력성은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정상재는 0보다 크고, 사치품은 보통 1보다 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격 변화와 무관하게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재화는 수요량이 가격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가격탄력성은 0인 완전비탄력적 수요로 본다.

② O
연필과 샤프펜슬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재화이다.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므로 교차탄력성은 양(+)이 된다.

③ X
틀린 부분은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은 경향"이라는 표현이다. 사치품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례 이상으로 증가하므로 소득탄력성이 보통 1보다 크다. 올바르게는 "사치품은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경향이 있다"이다. 가격탄력성이 큰 경우가 많을 수는 있지만, 사치품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소득탄력성이다.

④ O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면 소득이 늘 때 수요도 늘어나는 재화이므로 정상재이다. 열등재는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다.

오답 포인트

③은 사치품의 판단기준을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에서 뒤섞어 놓은 선지이다. 특히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다"라는 문구가 틀린 핵심이며, 사치품은 소득이 늘 때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어떤 탄력성을 묻는지부터 구분한다.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 반응, 교차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 소득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대한 반응이다. 그다음 부호와 기준값을 대입하면 된다.
대체재는 교차탄력성 양(+), 정상재는 소득탄력성 양(+), 사치품은 소득탄력성 1 초과이다.

암기 포인트

대체재는 교차탄력성 +, 정상재는 소득탄력성 +, 사치품은 소득탄력성 1 초과이다.

NoteBase

문 8. 두 재화(X재화와 Y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효용극대화를 하는 소비자가 있고, 그의 선호는 효용함수 $U = 2 \times (x + y) + 100$으로 표현된다고 한다. 주어진 효용함수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x와 y는 각 재화의 소비량을 의미한다.)

① 이 소비자는 두 재화를 완전 대체재로 인식하고 있다.

② 이 소비자는 두 재화를 완전 보완재로 인식하고 있다.

③ 이 소비자는 두 재화를 열등재로 인식하고 있다.

④ 이 소비자는 두 재화를 비재화로 인식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효용함수의 형태만 보고 두 재화의 관계를 판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완전 대체재와 완전 보완재·열등재·비재화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완전 대체재는 한 재화를 다른 재화로 일정한 비율로 계속 바꾸어도 효용수준이 같게 유지되는 재화이다. 이 문항의 효용함수 $U = 2(x + y) + 100$은 x와 y가 합으로만 들어가므로 무차별곡선이 직선이 되고 한계대체율이 일정하다.

완전 보완재는 두 재화를 정해진 비율로 함께 소비해야 효용이 증가하는 재화이며, 보통 $U = \min\{ax, by\}$ 형태로 나타난다.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이다. 이는 효용함수 모양만으로 바로 단정되지 않고 예산제약과 소득변화까지 보아야 한다.

비재화는 소비가 늘수록 효용을 낮추는 재화이다. 이 경우 해당 재화의 한계효용이 음수여야 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20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이 효용함수는 x와 y를 더한 값에만 효용이 비례하므로 두 재화 사이의 대체가 일정한 비율로 가능하다.
$MU_x = 2, MU_y = 2$이므로 한계대체율이 일정한 완전 대체재 관계로 해석된다.

② X
틀린 부분은 "완전 보완재"이다.
완전 보완재라면 두 재화를 일정 비율로 함께 써야 하므로 효용함수는 보통 $\min\{ax, by\}$ 형태가 된다. 이 문항의 효용함수는 합 형태이므로 올바르게는 완전 보완재가 아니라 완전 대체재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열등재"이다.
열등재 여부는 소득이 변할 때 수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판단하는 개념이므로, 주어진 효용함수만으로는 바로 결정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이 효용함수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두 재화가 완전 대체재라는 점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비재화"이다.
비재화라면 소비가 늘수록 효용이 감소해야 하지만, 이 효용함수에서는 x와 y가 늘면 효용이 증가한다.
$MU_x = 2, MU_y = 2$로 모두 양수이므로 올바르게는 두 재화는 비재화가 아니라 재화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열등재"와 ④의 "비재화"를 같은 부정적 개념처럼 묶어 오해하기 쉽다. 열등재는 소득효과의 문제이고, 비재화는 한계효용의 부호 문제이므로 판단 기준이 전혀 다르다. 또한 ②처럼 보완재를 떠올리면 안 되고, 합 형태인지 최소값 형태인지가 핵심 구분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효용함수를 보면 먼저 결합 방식부터 본다. 합 형태 $x + y$나 $ax + by$이면 직선 무차별곡선의 완전 대체재를 의심하고, $\min\{ax, by\}$ 형태이면 완전 보완재를 판단한다. 열등재 여부는 효용함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득변화와 수요반응이 제시되었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합 형태 효용은 완전 대체재, 최소값 형태 효용은 완전 보완재이다. 열등재는 소득반응, 비재화는 음의 한계효용으로 구별된다.

NoteBase

문 9.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시장가격에서 그은 수평선이다.

② 단기에서 기업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③ 기업은 한계비용이 상품의 가격보다 낮다면 이윤 증대를 위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④ 기업은 고정비용이 모두 매몰비용일 때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면 생산을 중단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기업의 수요곡선, 단기 초과이윤, 이윤극대화 조건, 단기 조업중단 기준을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이므로 개별기업의 수요곡선은 시장가격에서 수평이다.
단기 이윤극대화 조건은 $P = MR = MC$이며, $MC < P$이면 생산을 늘릴 유인이 있다.
고정비용이 모두 매몰비용인 단기에는 조업중단 여부를 평균총비용이 아니라 평균가변비용과 가격의 비교로 판단하며, $P < AVC$일 때 생산을 중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수용자이므로 시장가격에서 원하는 만큼 판매할 수 있어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선이다.
② O: 단기에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즉시 일어나지 않으므로 가격이 평균총비용보다 높으면 경제적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③ O: 완전경쟁기업은 $P = MC$가 될 때까지 생산량을 조정하므로 한계비용이 가격보다 낮으면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마다 이윤이 증가해 생산량을 늘린다.
④ X: 틀린 부분은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면 생산을 중단한다'는 표현이다. 고정비용이 모두 매몰비용이면 단기 조업중단 기준은 평균비용이 아니라 평균가변비용이다. 올바르게는 가격이 평균총비용보다 낮더라도 평균가변비용 이상이면 생산을 계속하고,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을 때 생산을 중단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평균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을 바꿔 놓은 선지이다. 단기에는 고정비용이 매몰비용이므로 평균총비용을 못 미쳐도 가변비용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으면 계속 생산하는 점을 놓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 문항에서는 먼저 가격수용자 여부와 $P = MC$를 확인하고, 생산중단 문구가 나오면 평균총비용이 아니라 AVC 기준인지부터 본다. '단기'와 '매몰비용'이 함께 나오면 조업중단 기준은 $P < AVC$이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은 $P = MR = MC$에서 생산량을 정하고, 단기 조업중단선은 AVC이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국내총생산에서 생산, 지출, 분배 측면의 값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ㄴ. 개인 간 중고거래는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H기업은 2020년 100억원어치의 자동차를 생산하였으나 시장에서 80억원만 거래되었다. 기업 활동 중 2020년 국내총생산에 포함되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된 80억원이다.
ㄹ. 개인투자자 A씨의 2020년 주식시장 시세차익은 1,000만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에서 가계부문의 금융소득에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GDP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하고, 미판매 생산분의 재고투자 처리와 자본이득의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GDP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재와 서비스의 부가가치 합계이다. 판단 기준은 올해 국내 생산인지 여부이다.
재고투자는 생산되었지만 팔리지 않은 산출을 투자로 기록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미판매분도 생산된 해의 GDP에 포함된다.
주식 시세차익 같은 자본이득은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평가차익일 뿐 현재 생산의 대가가 아니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과 ㄴ만 옳은 조합이다. ㄱ은 GDP를 생산, 지출, 분배 측면에서 계산해도 회계적으로 같은 값이 나온다는 뜻이므로 맞다. ㄴ은 개인 간 중고거래가 당기 국내 생산이 아니라 기존 재화의 이전이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아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ㄷ'을 옳다고 포함한 점이다. 자동차 100억원어치가 2020년에 생산되었다면 GDP에는 생산액 100억원이 반영된다.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20억원은 재고투자로 계산된다.
③ X: 틀린 부분은 'ㄴ'을 빼고 'ㄷ, ㄹ'을 넣은 점이다. 실제로는 ㄴ이 옳고, ㄷ과 ㄹ은 틀리다. ㄷ은 미판매분도 GDP에 들어간다는 점을 놓쳤고, ㄹ은 주식 시세차익을 금융소득으로 본 점이 틀렸다.
④ X: 틀린 부분은 'ㄷ, ㄹ'까지 모두 옳다고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만 옳다. ㄷ의 시장에서 거래된 80억원만 포함된다는 표현은 틀리고, ㄹ의 주식 시세차익 1,000만원이 GDP의 가계 금융소득에 포함된다는 표현도 틀리다.

오답 포인트

GDP를 시장에서 실제로 팔린 금액으로만 이해하면 ㄷ에 속기 쉽다. GDP는 생산 기준이므로 미판매분도 재고투자로 포함된다. 또 금융과 관련된 돈의 흐름이라고 해서 주식 시세차익까지 GDP 소득으로 넣으면 ㄹ에 속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DP 문항은 먼저 그 항목이 올해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것인지 본다. 생산되었으나 안 팔린 것은 재고투자로 포함하고, 중고거래나 주식 시세차익처럼 기존 자산의 이전이나 가격변동에서 생긴 금액은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GDP는 올해 국내 생산을 센다. 중고거래와 주식 시세차익은 제외되고, 미판매 생산분은 재고투자로 포함된다.

NoteBase

문 11. <보기>와 같은 경제에서 균형국민소득은 6,500이다. 만약 투자지출이 2,000으로 증가한다면 균형국민소득은 A로 증가하고 그때의 투자승수는 B이다. A와 B의 값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C = 1{,}000 + 0.5(Y - T)$, $I = 1{,}500$, $G = 1{,}000$, $T = 500$ (단, C는 소비지출, I는 투자지출,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Y는 국민소득)

① A: 7,000, B: 1

② A: 7,500, B: 2

③ A: 8,000, B: 3

④ A: 8,500, B: 4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액세가 있는 케인스 모형에서 소비함수를 정리한 뒤 투자승수와 새 균형조건으로 균형국민소득 변화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C = 1{,}000 + 0.5(Y - T)$, $T = 500$, 기존 $I = 1{,}500$, 변경 후 $I = 2{,}000$, $G = 1{,}000$이다.
구해야 할 값: 변경 후 균형국민소득 A, 투자승수 B이다.
주의할 조건: 투자지출이 2,000만큼 증가한 것이 아니라 2,000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투자 증가분은 500이다.

사용할 공식

균형조건은 $Y = C + I + G$이고, 투자승수는 $k = \frac{1}{1 - MPC}$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이 경제는 정액세가 있는 단순 케인스 모형이므로 총지출과 국민소득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 정해지고, 투자 변화의 파급효과는 한계소비성향 MPC로 계산된다.

계산 과정

1. 소비함수를 정리하면 $C = 1{,}000 + 0.5(Y - 500) = 750 + 0.5Y$이다.
2. 투자 변경 후 총지출은 $AE = 750 + 0.5Y + 2{,}000 + 1{,}000 = 3{,}750 + 0.5Y$이다.
3. 균형조건 $Y = AE$를 대입하면 $Y = 3{,}750 + 0.5Y$이므로 $0.5Y = 3{,}750$, 따라서 $Y = 7{,}500$이다. 그래서 $A = 7{,}500$이다.
4. 한계소비성향은 0.5이므로 투자승수는 $k = \frac{1}{1 - 0.5} = 2$이다. 그래서 $B = 2$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A를 7,000으로 본 값과 B를 1로 본 값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투자지출이 1,500에서 2,000으로 바뀌므로 증가분은 500이고, 승수는 2이므로 소득은 1,000 증가하여 $A = 7{,}500$, $B = 2$이다.

② O

계산 결과 변경 후 균형국민소득은 7,500, 투자승수는 2이다. 따라서 A와 B를 옳게 짝지은 것은 ②이다.

③ X

A를 8,000으로, B를 3으로 본 값이 모두 틀렸다. 이는 투자지출이 2,000만큼 증가한 것으로 잘못 읽거나 승수를 잘못 계산한 오답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A = 7{,}500$, $B = 2$이다.

④ X

A를 8,500으로, B를 4로 본 값이 모두 틀렸다. 이는 투자승수 효과를 과대평가한 오답이다. 투자 증가분 500에 승수 2를 곱하면 소득 증가분은 1,000이므로 올바른 값은 $A = 7{,}500$, $B = 2$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투자지출이 2,000으로 증가'를 '2,000만큼 증가'로 오해하는 데 있다. 또한 승수는 평균소비성향이 아니라 한계소비성향 0.5로 계산하므로 $\frac{1}{1-0.5} = 2$를 바로 잡아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런 계산형 문제는 먼저 기존값과 변경 후 값을 구분해 증가분을 확정하고, 다음에 $k = \frac{1}{1-MPC}$를 계산한 뒤 $\Delta Y = k\Delta I$ 또는 새 균형식 $Y = C + I + G$로 검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정액세가 있는 단순 케인스 모형에서는 $MPC = 0.5$이면 승수는 2이고, '...으로 증가'는 최종 수준을 뜻한다.

NoteBase

문 12. 사람들은 정부정책을 포함한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적정하게 이용하여 장래를 예측한다는 이론이 있다. 거시경제학 여러 분야에 영향을 준 이 이론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합리적 기대 이론

② 로버트 루카스

③ 희생비율이 매우 낮거나 0이라는 주장

④ 행동경제학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합리적 기대 이론의 핵심 가정과 그 이론에서 파생된 대표 인물·정책 함의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합리적 기대 이론은 경제주체가 정부정책을 포함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반영해 미래를 예측한다고 본다.
로버트 루카스는 이 가정을 새고전학파 거시경제학으로 확장해 정책무력성 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관점에서는 예상된 정책은 실질변수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의 희생비율이 매우 낮거나 0일 수 있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반면 행동경제학은 제한된 합리성, 인지편향, 휴리스틱을 강조하므로 완전한 정보활용과 일관된 합리성을 전제하는 합리적 기대 이론과 문제의식이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합리적 기대 이론 자체를 가리키는 선지이므로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② O
로버트 루카스는 합리적 기대 가정을 거시모형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대표 학자이다. 루카스 비판과 새고전학파 논의가 모두 이 흐름에 놓여 있다.

③ O
예상된 정책은 실질산출이나 고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정책무력성 명제와 연결되므로, 인플레이션을 낮출 때 희생비율이 매우 낮거나 0일 수 있다는 주장도 합리적 기대 이론과 관련된다.

④ X
틀린 부분은 '행동경제학'을 이 이론의 연장선으로 보는 연결이다.
실제로 행동경제학은 실제 인간이 편향과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완전하게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므로, 합리적 기대 이론과 가장 관련이 없는 선택지이다.

오답 포인트

행동경제학도 기대와 선택을 다루므로 비슷해 보이지만, 합리적 기대 이론은 정보의 적정 활용과 모형 일관성을 전제하고 행동경제학은 그 전제가 현실에서 자주 깨진다고 본다는 점이 핵심 차이이다. 또 ③은 문장만 보면 극단적으로 보여 낯설 수 있지만, 새고전학파의 정책무력성 함의로 연결하면 정리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에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 '정부정책 반영', '장래 예측'이 나오면 먼저 합리적 기대 이론을 떠올린다. 그다음 루카스, 새고전학파, 정책무력성, 낮은 희생비율처럼 파생 키워드를 묶고, 제한된 합리성·인지편향·휴리스틱이 나오면 행동경제학으로 분리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합리적 기대 = 루카스 = 예상된 정책의 실질효과 약함, 행동경제학 = 제한된 합리성·인지편향이다.

NoteBase

문 13. 변동환율제도하의 자본이동이 완전한 개방경제에서 정부지출이 정부수입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자율이 상승한다.

② 순자본유출이 감소한다.

③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인 경기조절 수단이다.

④ 환율이 하락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변동환율제도와 완전자본이동 아래에서 재정적자 확대가 이자율, 순자본유출, 환율, 정책효과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정적자는 정부지출이 정부수입을 초과하여 국민저축을 줄이는 상태이다.
변동환율제도와 완전자본이동 아래에서는 재정확대가 이자율 상승 압력을 만들고 자본유입을 유발하여 자국통화를 절상시킨다.
그 결과 순수출이 줄어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약해지고, 통화정책은 환율 변동을 통해 총수요에 더 크게 작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국민저축이 줄어 이자율에 상승 압력이 생긴다. 이 상승 압력이 해외자금을 끌어들여 자본유입과 통화절상을 유발한다.

② O
국내 이자율 상승 압력은 해외자금 유입을 부르므로 순자본유출은 감소한다. 자본이 밖으로 덜 나가거나 오히려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이므로 이 진술은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표현이다. 변동환율과 완전자본이동에서는 재정확대가 환율절상과 순수출 감소에 의해 상당 부분 상쇄되므로 경기조절 수단으로는 통화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④ O
순자본유출이 감소하면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 공급이 줄어 자국통화 가치가 상승한다. 따라서 자국통화 기준 환율은 하락하므로 이 진술은 맞다.

오답 포인트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의 정책효과를 뒤바꾸면 쉽게 틀린다. 고정환율에서는 재정정책이 강하고 통화정책이 약하지만, 변동환율에서는 그 관계가 반대로 나타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환율제도가 변동인지 고정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자본이동이 완전한지 본다. 변동환율과 완전자본이동이 함께 나오면 재정확대는 이자율 상승 압력 → 자본유입 → 통화절상 → 순수출 감소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정책효과는 통화정책 우위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변동환율+완전자본이동은 재정 약, 통화 강, 순자본유출 감소, 환율 하락이다.

NoteBase

문 14. 갑(甲)과 을(乙)은 TV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갑의 제품이 을의 제품보다 고장 가능성이 낮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모른다. 따라서 갑은 이를 알리기 위해 품질보증(warranty)을 시행하였고, 을의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 사례의 품질보증과 가장 관련 있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외부효과(externality)

② 신호발송(signaling)

③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④ 골라내기(screening)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보의 비대칭 아래에서 고품질 생산자가 품질보증으로 자신의 품질을 알리는 신호발송과, 외부효과·가격차별·골라내기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호발송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의 유형이나 품질을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 비용이 드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고품질 생산자인 갑이 품질보증을 제공해 자신의 낮은 고장 가능성을 알리고 있다.
골라내기는 정보를 덜 가진 쪽이 계약 조건이나 메뉴를 설계해 상대의 정보를 끌어내는 것이다. 소비자나 보험회사가 여러 계약안을 제시해 상대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격차별은 같은 상품을 소비자 집단별 수요탄력성이나 지불의사에 따라 다르게 가격 매기는 것이다. 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 밖의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이 파급되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외부효과는 거래와 무관한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이 미치는 현상이다. 이 사례는 제3자 파급효과가 아니라 품질 정보를 알리는 문제이다. 틀린 표현은 "외부효과"이며, 올바르게는 "정보비대칭하에서의 신호발송"이다.
② O: 갑은 실제로 품질이 더 좋은 생산자이고, 소비자가 이를 모르므로 품질보증을 제공해 자신의 품질을 드러내고 있다. 품질보증은 저품질 생산자에게는 따라 하기 더 부담스러운 비용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신호발송에 해당한다.
③ X: 가격차별은 동일한 재화를 서로 다른 소비자에게 다른 가격으로 파는 개념이다. 이 사례의 높은 가격은 소비자 집단별 차별가격이 아니라 높은 품질을 알리는 결과이다. 틀린 표현은 "가격차별"이며, 올바르게는 "품질보증을 통한 신호발송"이다.
④ X: 골라내기는 정보를 덜 가진 쪽이 상대의 숨은 정보를 끌어내는 장치이다. 이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메뉴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 갑이 스스로 정보를 보내고 있다. 틀린 표현은 "골라내기"이며, 올바르게는 "정보를 가진 생산자의 신호발송"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품질보증 뒤에 높은 가격이 붙어 있어 ③ 가격차별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가격차별의 기준은 소비자별 다른 가격책정이고, 이 문항의 핵심은 품질을 모르는 소비자에게 고품질 생산자가 보증으로 정보를 보내는 점이다. ④ 골라내기와도 자주 헷갈리지만, 누가 정보를 보내는지와 누가 정보를 끌어내는지를 구분하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보증, 학력, 광고, 담보 같은 비용 행동으로 자신의 질을 알리면 신호발송이다. 정보를 덜 가진 쪽이 계약 메뉴나 질문으로 상대의 유형을 가려내면 골라내기이다. 제3자 파급효과가 나오면 외부효과, 소비자별 다른 가격책정이 나오면 가격차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신호발송은 가진 정보의 발신, 골라내기는 없는 정보의 유인, 가격차별은 소비자별 가격차, 외부효과는 제3자 파급효과이다.

NoteBase

문 15. 어떤 국가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증가하여 총공급곡선이 이동하였다. 이 국가의 균형공급량과 균형물가수준의 변화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균형공급량이 감소하고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한다.

② 균형공급량이 감소하고 균형물가수준은 상승한다.

③ 균형공급량이 증가하고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한다.

④ 균형공급량이 증가하고 균형물가수준은 상승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요소생산성 상승이 총공급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때 균형공급량과 균형물가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총요소생산성은 같은 노동과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총요소생산성이 높아지면 생산비용이 낮아지고 잠재생산능력이 커져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균형공급량이 감소"이다. 총요소생산성이 오르면 같은 생산요소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므로 총공급이 늘어나고 균형공급량은 증가한다. 물가수준 하락 방향만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균형공급량이 감소"와 "균형물가수준은 상승"이다. 실제로는 총공급 증가로 균형공급량은 증가하고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한다.
③ O: 총요소생산성 상승은 기술효율 개선으로 생산비용을 낮추고 총공급을 확대한다. 따라서 균형공급량은 증가하고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균형물가수준은 상승"이다. 실제로는 공급 확대가 물가를 낮추므로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한다. 균형공급량 증가만 맞다.

오답 포인트

총요소생산성 상승을 총수요 증가와 혼동하면 ④처럼 산출량과 물가가 함께 오른다고 착각한다. 이 문항은 수요 충격이 아니라 공급 충격을 묻는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술진보, 생산성 상승, 원가 하락이 나오면 총공급 우측 이동을 먼저 떠올린다. 총공급 우측 이동의 결과는 산출량 증가와 물가 하락의 조합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생산성 상승은 공급 확대, 공급 확대는 산출량 증가와 물가 하락이다.

NoteBase

문 16. '70의 법칙(rule of seventy)'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이 연간 7%의 비율로 성장할 경우 약 10년이 지나면 원래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어떤 국가의 국내총생산이 연간 2%로 성장하고 있다. 이 국가의 국내총생산이 두 배가 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5년

② 25년

③ 35년

④ 45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70의 법칙을 이용해 성장률이 주어졌을 때 국내총생산이 두 배가 되는 근사 기간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국내총생산의 연간 성장률은 2%이다.
구해야 할 값: 국내총생산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주의할 조건: 70의 법칙은 두 배가 되는 기간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경험법칙이다.

사용할 공식

사용 공식은 두 배 기간 ≈ (70)/(성장률(\%))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성장률이 퍼센트로 주어졌고, 두 배가 되는 기간을 70의 법칙으로 바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성장률 2%를 70의 법칙에 대입한다.
2. $\frac{70}{2} = 35$를 계산한다.
3. 따라서 국내총생산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35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5년은 $\frac{70}{15} \approx 4.7\%$ 성장일 때의 두 배 기간에 가깝다. 2% 성장의 경우와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15년"이며 올바르게는 "약 35년"이다.
② X: 25년은 $\frac{70}{25} = 2.8\%$ 정도 성장할 때의 두 배 기간에 해당한다. 2% 성장보다 높은 성장률을 전제로 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25년"이며 올바르게는 "약 35년"이다.
③ O: 70의 법칙에 따라 $\frac{70}{2} = 35$이므로 국내총생산은 약 35년 뒤 두 배가 된다.
④ X: 45년은 $\frac{70}{45} \approx 1.6\%$ 성장일 때의 두 배 기간에 가깝다. 2% 성장이라면 이보다 더 짧은 약 35년이 맞다. 틀린 표현은 "45년"이며 올바르게는 "약 35년"이다.

오답 포인트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두 배 기간은 길어진다는 역비례 관계를 놓치기 쉽다. 제시문에 나온 7%에서 약 10년이라는 예시를 보고 2%일 때도 비슷한 짧은 기간으로 오해하면 ①이나 ②로 흔들릴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70의 법칙 문제는 먼저 두 배 기간 ≈ (70)/(성장률(\%))를 적용한다. 성장률이 작아지면 기간은 길어지고, 성장률이 커지면 기간은 짧아진다는 방향까지 함께 확인하면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70의 법칙은 두 배 기간 ≈ (70)/(성장률(\%))이며, 2% 성장이라면 약 35년이다.

NoteBase

문 17. 경매(auction)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매는 상대방의 입찰금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입찰금액을 정해야 하므로 게임이론으로 연구하기 적합하지 않다.

② 예술품 경매로 유명한 소더비와 크리스티에서는 입찰제(sealed bid) 방식의 경매를 실시한다.

③ 제2가격입찰제(second-price auction)는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경매방식이다.

④ 승자의 불행(winner's curse)은 경매의 승자가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향을 뜻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매의 기본 유형과 제2가격입찰제, 승자의 불행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개경매는 참가자의 호가가 드러난 채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낙찰자가 정해지는 방식이다.
입찰제 경매는 각자가 가격을 써내고 그 결과로 낙찰자와 낙찰가격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제2가격입찰제는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받되 실제 지불가격은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가 되는 방식이다.
승자의 불행은 공통가치 경매에서 낙찰자가 가치를 가장 높게 과대평가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서 사후적으로 비싸게 샀다고 느끼게 되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경매는 상대방의 입찰금액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각자가 전략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대표적 게임이론 분석 대상이다. 틀린 표현은 "게임이론으로 연구하기 적합하지 않다"이다. 올바르게는 "정보의 비대칭과 전략적 상호작용이 있으므로 게임이론으로 연구하기 적합하다"이다.
② X. 소더비와 크리스티 같은 전통적 예술품 경매는 대표적으로 공개호가식인 영국식 경매로 진행된다. 틀린 표현은 "입찰제 방식의 경매를 실시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공개적으로 가격을 높여 가는 공개경매를 실시한다"이다.
③ X. 제2가격입찰제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고, 지불만 두 번째 가격으로 한다. 틀린 표현은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이다. 올바르게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되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이다.
④ O. 승자의 불행은 특히 공통가치 경매에서 낙찰자가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한 결과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향을 뜻하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처럼 낙찰자와 지불가격의 기준을 뒤섞으면 제2가격입찰제를 잘못 이해하기 쉽다. 또한 ②는 예술품 경매라는 사례를 제시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유명 경매회사의 대표 방식은 비밀입찰이 아니라 공개호가식 경매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매 문제는 먼저 "누가 낙찰받는가"와 "얼마를 지불하는가"를 분리해서 본다. 제2가격입찰제는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 지불은 두 번째 가격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제2가격입찰제는 최고가가 이기고 두 번째 가격을 낸다. 승자의 불행은 공통가치 경매의 과대평가 문제이다.

NoteBase

문 18. 화폐금융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화량 등의 정책변수의 변화가 실물부문에 파급되는 경로를 화폐금융정책의 전달경로라고 한다.

②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은 폐쇄경제보다 변동환율제하의 개방경제에서 더 큰 총수요증대효과를 가져온다.

③ 고정환율제도에서 이자율을 내리는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은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이자율을 올리는 긴축적 화폐금융정책은 실업의 감소를 가져온다.

④ 물가안정목표제는 화폐금융정책의 대외적 측면을 중시하고 정책의 비일관성에서 오는 신뢰문제를 완화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개방경제의 환율제도별 화폐금융정책 효과와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화폐금융정책의 전달경로는 통화량이나 이자율 변화가 투자, 소비, 순수출 등을 거쳐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화폐금융정책이 이자율 변화와 환율 변화를 함께 일으켜 순수출까지 움직일 수 있으므로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자본이동이 가능한 경우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므로 독자적인 화폐금융정책 효과가 약해지거나 상쇄된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안정을 명시적 목표로 공표해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정책 비일관성에 따른 신뢰문제를 줄이는 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통화량이나 정책금리 변화가 이자율, 자산가격, 신용, 투자와 소비를 거쳐 산출과 물가에 영향을 주는 연결 고리를 화폐금융정책의 전달경로라고 한다.

② O
변동환율제도하의 개방경제에서는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이 이자율 하락을 통해 자본유출과 자국통화 절하를 유발하고, 그 결과 순수출 증가가 추가되어 폐쇄경제보다 총수요 확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③ X
고정환율제도에서 이자율을 내리면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압력이 생기는 설명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으로 통화량을 다시 조정하게 되어 독자적 확장정책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
틀린 표현은 "이자율을 올리는 긴축적 화폐금융정책은 실업의 감소를 가져온다"이다.
올바르게는 긴축적 화폐금융정책은 총수요를 줄여 실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그 효과도 환율 방어 과정에서 상쇄되기 쉽다.

④ O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그 목표에 맞추어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공표하는 제도이므로,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비일관성 문제를 완화한다.
여기서 대외적 측면은 대외부문 자체라기보다 목표를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명시성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고정환율제도에서의 국제수지 반응과 실업 효과를 한 문장에 섞어 놓아 혼동을 유도한다. 긴축정책이면 실업이 줄어든다고 뒤집어 쓴 부분이 핵심 함정이다. ④도 "대외적 측면"을 외환시장이나 환율정책으로 오해하면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환율제도가 고정인지 변동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확장정책이면 이자율, 자본이동, 환율, 순수출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본다. 실업과 총수요의 방향이 긴축정책과 반대로 적혀 있으면 오답 가능성이 크다.
물가안정목표제는 공개된 물가목표와 신뢰 확보 장치라는 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변동환율제도는 화폐정책 강함, 고정환율제도는 화폐정책 제약 큼, 물가안정목표제는 공개된 물가목표로 신뢰를 높이는 제도이다.

NoteBase

문 19. 솔로우의 성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한 경제 내에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면 1인당 소득이 높아진다.

② 최초에 경제가 어디서 출발하는지에 따라 정상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달라진다.

③ 인구증가율이 양수(+)인 경제라도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한 이후에는 총국민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

④ 현실적으로 신기술의 국가 간 빠른 전파속도를 감안할 때 솔로우 성장모형은 국가 간의 성장률 격차를 잘 설명해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1인당 변수와 총량 변수, 정상상태의 의미, 국가 간 성장률 설명력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1인당 자본량은 노동자 1인당 자본 k이고, 1인당 소득은 $y = f(k)$로 결정되므로 k가 늘면 y도 늘지만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정상상태는 1인당 변수 k, y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이며, 그 수준은 저축률·인구증가율·감가상각률·기술진보율 같은 구조적 변수로 결정되고 초기 출발점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인구가 증가하는 경제에서는 정상상태에 도달해도 총자본과 총생산 같은 총량 변수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솔로우 모형에서 1인당 생산은 $y = f(k)$이므로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면 1인당 소득도 증가한다. 다만 증가 폭은 체감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최초에 경제가 어디서 출발하는지에 따라 정상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달라진다'이다. 실제로는 초기 출발점은 정상상태까지 가는 전이경로만 바꾸고, 정상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저축률·인구증가율·감가상각률 등 구조적 변수로 결정된다.
③ X: 틀린 표현은 '정상상태에 도달한 이후에는 총국민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이다. 실제로는 정상상태에서 일정한 것은 1인당 변수이고, 인구증가율이 양수이면 총국민소득은 인구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국가 간의 성장률 격차를 잘 설명해준다'이다. 실제로는 기본 솔로우 성장모형은 장기적으로 국가 간 1인당 성장률이 비슷해지는 방향을 설명할 뿐, 현실의 지속적인 국가 간 성장률 격차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정상상태를 '아무 것도 성장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하면 ③에 걸리기 쉽다. 또한 초기조건이 정상상태 수준까지 바꾼다고 보면 ②에 걸리며, 솔로우 모형의 수렴 논리를 현실의 성장률 격차 설명력과 혼동하면 ④에 걸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솔로우 문항은 먼저 1인당 변수인지 총량 변수인지 구분하고, 다음으로 정상상태가 '1인당 수준의 정지'인지 '경제 전체의 정지'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초기조건은 전이경로를, 구조적 변수는 정상상태 수준을 결정한다.

암기 포인트

솔로우 모형은 '더 많은 k는 더 높은 y, 초기조건은 경로만 결정, 정상상태는 1인당 정지·총량은 인구만큼 성장'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20. (일본)엔화 환율은 (미국)달러당 엔화 금액으로 표시한다. 현재 엔화 환율이 달러당 100엔이라고 하자.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3%이고 일본은 2%일 때, 구매력평가설이 예측하는 엔화의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의 변화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명목환율 하락, 실질환율 상승

② 명목환율 하락, 실질환율 변화 없음

③ 명목환율 상승, 실질환율 상승

④ 명목환율 상승, 실질환율 변화 없음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구매력평가설에서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명목환율은 한 나라 화폐를 다른 나라 화폐로 표시한 교환비율이다. 이 문제의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몇 엔인가를 뜻한다.
실질환율은 물가를 반영한 상대가격으로 q=eP_미국/P_일본이다.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은 물가상승률 차이만큼 명목환율이 조정되어 실질환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엔/달러 환율은 e=P_일본/P_미국 방향으로 이해하면 미국 물가가 일본보다 더 오를 때 하락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명목환율 하락은 맞지만 실질환율 상승이 틀리다. 구매력평가설에서는 물가상승률 차이가 명목환율에 반영되어 q=eP_미국/P_일본가 일정하다. 틀린 표현은 "실질환율 상승"이며, 올바르게는 "실질환율 변화 없음"이다.
② O: 미국 물가상승률 3%가 일본 2%보다 높으므로 엔/달러 명목환율 e는 하락한다. 미국 물가가 더 빨리 오르면 1달러의 실질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달러당 엔화 표시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동시에 구매력평가설에서는 실질환율이 변하지 않는다.
③ X: 명목환율 상승과 실질환율 상승이 모두 틀리다. 미국 물가가 일본보다 더 오르면 엔/달러 명목환율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한다. 또한 구매력평가설에서는 실질환율도 상승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명목환율 하락, 실질환율 변화 없음"이다.
④ X: 실질환율 변화 없음은 맞지만 명목환율 상승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명목환율 상승"이며, 올바르게는 "명목환율 하락"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환율의 표시방식을 거꾸로 읽으면 방향을 반대로 판단하기 쉽다. 이 문제는 원/달러가 아니라 엔/달러, 즉 달러당 엔화 금액이므로 미국 물가가 더 오르면 환율이 하락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또 구매력평가설에서는 실질환율이 불변이라는 점을 놓치면 ①로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환율 표시방식이 자국통화/외국통화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이면 물가상승률이 더 높은 나라의 통화는 실질구매력이 더 빨리 떨어지므로 명목환율이 그 차이만큼 조정되고, 실질환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구매력평가설은 물가차는 명목환율이 흡수하고 실질환율은 그대로라는 명제이다.

NoteBase